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2편

Jeff Pippenger

2025-12-17

번호 12

나의 바람은 요엘의 예언적 증언을,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하고 행한 것 속에서 그 증언이 드러나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성경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분명하다고 확신하지만, 베드로가 오순절의 메시지를 요엘서의 성취로서 제시했을 때, 늦은 비의 역사 속에서 예언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상징하며, 그 상징은 오순절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드러난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에 해당하는데, 그 세 절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파니움'이라 불리던 역사적 시기에 처음 성취된 전투를 서술한다. 13절부터 15절은 16절에 앞서며, 16절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을 가리킨다. 10절은 1989년 소련의 붕괴를 가리킨다.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6절은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를 나타내며, 그 기간은 같은 장 40절의 '감춰진 역사'이다.

BOLDFACE 속 숨겨진 역사

천칠백구십팔

종말의 때에 남방의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1989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기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북방의 왕은 전차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같이 그를 치러 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 넘쳐흐르며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이 와서 넘쳐흐르고 지나갈 것이니, 그때 그는 돌아와 분기하여 그의 요새에까지 이를 것이다.

2014년 라피아 전투

남방의 왕은 격분하여 나와 그와, 곧 북방의 왕과 싸울 것이며, 북방의 왕은 큰 무리를 일으키겠으나 그 무리는 남방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 무리를 제압한 후에 남방의 왕의 마음이 높아져 수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나 강해지지는 못할 것이다.

파니움 전투(가이사라 빌립보)

왜냐하면 북방의 왕이 다시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 해 후에는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많은 자들이 남방의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또한 네 백성 가운데 약탈자들도 그 환상을 이루려고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쓰러지리라.

이에 북쪽의 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할 것이다. 남쪽의 군세는 능히 막아내지 못하고, 그의 선발된 자들도 그러하지 못하리니, 맞서 버틸 힘이 아무에게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주일법

그러나 그에게 대적하여 오는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그 앞에서는 "아무도 서지 못하리라";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서게 될 것"이니,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해 소멸될 것이다. 그는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리라.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는 여러 나라들 위에 또한 손을 뻗을 것이며, 애굽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다니엘 11:40, 10-16, 41, 42.

베드로가 예언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파니움)에 있을 때, 오순절은 늦은비의 때이며, 그것은 그를 40절의 '감춰진 역사'에 위치시킨다. 나는 11장 11절에 나타난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13절에서 15절의 파니움의 다가오는 전쟁,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전쟁을 다루려 하는데, 이것들은 1989년과 일요일 법 사이의 외적 사건들이지만, 우리는 현재 1844년 10월 22일부터 1863년에 합법적인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셋째 천사의 역사를 규명하고 있다.

이 선은 9/11(1844)에 셋째 천사가 도착하여 일요일 법령(1863)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일요일 법령은 자유를 선포한 노예해방선언으로 예표되었는데, 이는 자유가 박탈되는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 것이다. 첫 번째 공화당 대통령이 선포한 자유는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그는 예언적으로 일요일 법령 때 독재자가 될 운명에 있다—에 의해 박탈될 자유를 예표한다.

"우리나라가 일요일법을 제정할 정도로 정부의 원칙을 그렇게 저버리게 될 때, 바로 그 행위로 개신교는 교황주의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다시 본격적인 전제정치로 도약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 온 폭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증언, 제5권, 711.

기원전 742년은 이사야 7장 8절의 시간 예언을 시작한 알파 역사였으며, 1863년에 오메가 성취에 이르렀다. 742년에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는 북왕국을 이루던 열 지파와 내전에 돌입하고 있었다. 기원전 742년의 역사는 성경의 문자적 영광의 땅인 유다에서, 문자적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땅에서, 본문에서는 악하고 어리석은 왕 아하스로 대표되어 이렇게 1863년의 오메가 역사를 예표하였다. 1863년의 오메가 역사는 미국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자 땅의 짐승으로 군림하는 기간 안에서 성취된다. 미국은 성경적으로 영적 유대인들인 개신교로 이루어진 영적 영광의 땅이다. 알파 역사인 기원전 742년의 남북 간 내전은 오메가 역사인 1863년의 남북 간 내전을 예표하였다. 함께 그 두 증인은 영적 영광의 땅이 다시 두 부류로 나뉘게 될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외적 역사를 보여 준다.

기원전 742년에 북방의 세력은 이스라엘의 북부 열 지파와 시리아의 동맹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외부 세력과의 동맹을 상징했다. 그 상징은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교황권의 지지가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 주들에게 주어졌을 때 성취되었다. 기원전 742년에 시리아의 외부 동맹국과, 남북전쟁에서 교황권의 외부 동맹국은, MAGA주의에 맞서 벌이는 전쟁에서 세계 글로벌리스트들과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의 동맹을 가리킨다. 그 전쟁은 2015년에 네 번째이자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일어났을 때 시작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서 11장 2절에 따라 그레시아의 온 영역을 흔들어 놓았다. 그 격동은 요엘서에 나오는 이방인의 각성을 가리킨다. "그레시아"와 "이방인"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동맹하여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용의 세력을 상징한다.

2015년, 이방인들은 요엘이 심판의 골짜기라고도 부른 여호사밧 골짜기로의 예언적 부름에 깨어났다. 2015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하여 그레시아로 표현된 글로벌리스트 제국을 뒤흔들었고, 이방인들은 아마겟돈을 향한 행군을 시작했으며, 이는 다니엘 11장 11절의 성취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1년 뒤였다.

기원전 742년과 1863년의 내전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종말을 표시하는 주일법의 역사를 드러낸다. 그 여섯째 왕국은 독립전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주일법에서 그 왕국이 끝난다는 사실은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독립전쟁이 반복됨을 가리킨다. 내전인지 혁명전쟁인지에 대한 정의와 명명은 관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지금 법률전, 횡령, 사기, 불법 이민, 선전을 통해 하고 있는 일을 그들은 색깔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글로벌리스트 책동에 반대하는 이들은 똑같은 행위를 '사회적 소요'의 선동으로 본다. 안티파는 범죄자인가, 영웅인가?

두 개의 역사적 전쟁은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분열적인 전쟁을 나타낸다.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전쟁은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며, 그는 또한 혁명 전쟁의 승자였던 초대 대통령으로 예표되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MAGA 혁명은 현재의 '사회적 소요'를 낳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현재의 전쟁은 혁명 전쟁이거나 내전이다. 예언적으로는 둘 다다.

1863년은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며, 셋째 천사가 일요일 법령의 기별을 가지고 도래한 1844년도 마찬가지이다. 1844년부터 1863년에 이르는 기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요일 법령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 1846년에 화이트 부부의 혼인, 안식일 준수, 그리고 하멘에서 화이트로의 이름 변경은 1844년 10월 22일에 맺어진 혼인이 완결되었음을 표시했으며, 그 완결은 셋째 천사의 시험 과정의 시작을 표시했다. 이는 홍해에서의 침례 이후에 이어진 열 가지 시험의 시작을 만나의 세 겹 안식일 시험이 표시했던 것과 같았다.

만나는 첫 번째 시험이었고 가데스에서의 열 번째 시험을 상징했는데, 이는 둘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며 따라서 일요일 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오랜 기간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주 안식일의 거룩함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마련된 세 가지 기적을 목격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두 배로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으며, 또 안식일에 필요한 분량은 달고 순전한 상태로 보존되었는데, 반면 다른 때에 남겨 두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족장과 선지자, 296쪽.

열 가지 시험 중 첫째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세 가지 기별을 대표하는 "만나" 시험이었다. 만나와 마찬가지로, 그 천사들은 한 주의 첫째 날에 행하는 예배에 대한 세 겹의 경고를 대표한다. 세 겹의 만나 기적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거룩함을 각인시키도록 고안된" 것이었는데, 이는 물론 셋째 천사의 의도이다. 만나로 상징된 세 가지 기적 중 첫째는 하늘의 빵을 "먹는" 것이었고, "먹는 것"은 늦은비 시기의 알파 상징이다. 둘째 기적은 바벨론의 두 번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시기를 표시하기 위해 영감이 단어와 구절을 "두 번" 반복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낸다. 이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적은 여섯째 날에 만나의 양이 "두 배가 되는" 것이었다. 셋째 기적은 일곱째 날 안식일의 빵이 보존되는 것이었다.

세 천사의 모형으로서 만나가 첫째 천사이며, 그러므로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전체 이야기는 세 천사 모두의 이야기다. 첫째 천사는 세 천사의 모든 메시지의 프랙탈이다. 프랙탈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로, 각 부분은 전체를 축소한 복사본이다. 이러한 성질을 자기유사성이라 한다. 프랙탈은 얼마나 확대해도 정교한 세부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프랙탈은 수학, 생물학, 물리학, 지질학, 화학, 천문학, 공학 등 많은 분야에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세 단계 구조"를 이루며, 이 구조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 나타나 있으므로 첫째 천사는 세 천사의 "프랙탈"이 된다. 다니엘서의 처음 세 장은 각각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대표하며, 다니엘서 1장에는 그 세 장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세 단계 구조"가 담겨 있고, 이는 첫째 천사와의 관계에서 본 세 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만나의 세 가지 기적은 먹도록 주어진 것이었고, 다니엘서 1장은 먹는 것을 다룬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식단 대신 채소를 선택함으로써 음식 시험을 통과했다. 이어 그는 외모로 시험을 받았고, 그의 용모와 바벨론의 음식을 먹은 자들의 용모 사이에 분리가 생겨났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두 부류가 형성되고 드러나는 분리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분리하라는 부르심이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두 번째 시험은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시험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1장의 세 번째 시험이었고 3장의 금 신상 시험을 예표했다. 시스터 화이트는 이를 거둬 일요일 법령으로 규정하는데, 그것이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처음 세 장의 프랙탈이며, 그 세 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대표한다. 그 가운데 첫째 천사와 다니엘서 1장은 모두 세 천사 전체와 세 장 전체의 프랙탈이다.

광야에서 오랜 기간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주 안식일의 거룩함을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세 가지 기적을 목격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두 배로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으며, 안식일에 필요한 분량은 달고 깨끗한 상태로 보존되었으나, 다른 때에는 남겨 두면 쓰지 못하게 되었다.

"만나를 주신 일과 관련된 상황들 속에는,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이 안식일이 시내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 이르기 전에, 그들은 안식일 준수가 자신들에게 의무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그 준비를 위해 매주 금요일에 만나를 두 몫 거두어야 했고, 이를 통해 안식의 날의 거룩한 성격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각인되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일부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주께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법을 지키기를 거절하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족장들과 선지자, 296.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취해(거두어) 그것을 먹는 것을 예표한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되, "가져다가 먹어라. 그것이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요한계시록 10:9.

요한은 먼저 천사에게 가서 청해야 했고, 그다음에는 작은 책을 '취해야' 했으며, 그다음에는 그것을 '먹어야' 했다. 요한은 천사에게 가서 청하는 첫째 단계, 이어 '취하는' 둘째 단계와 '먹는' 셋째 단계를 통해 첫째 천사의 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거두거나 먹는 것은 만나의 세 가지 시험 중 첫째이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 만나 시험 전체의 프랙탈이 들어 있다. 만나를 거두고 먹는 것은 예레미야를 예표한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여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예레미야 15:16.

예레미야가 찾고 이어 작은 책을 구함으로써 그의 '말씀이 발견되었다.' 만나가 거두어질 때 그의 말씀이 발견되었다.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책을 먹었던 에스겔을 예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책을 먹기를 거부하는 것이 패역한 족속과 같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너는 그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열어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내게로 뻗어 왔고, 그 손에 책의 두루마리가 있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안팎에 글이 쓰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얻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리하여 내가 입을 열었고, 그가 내게 그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네 배로 먹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채워라."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에스겔 2:8-3:3.

에스겔이 그 작은 책을 먹기를 거부했다라면 그는 반역하는 집에 있게 되었을 것이며, 그가 먹어야 했던 "책"의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화"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말세의 세 가지 기별을 나타낸다. 말세의 세 가지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며, 에스겔이 그 세 기별을 제시하는 맥락은 이슬람과 셋째 화의 맥락이다. 그 세 기별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 셋째는 "화"이며 이는 이슬람의 주요 상징이므로 알파는 오메가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애가"는 일곱째 나팔과 셋째 화의 도래와 함께 9/11에 시작된 애가를 가리키며, 그것은 점차 격화되어 일곱 마지막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일요일 법령 "지진" 때에 셋째 화가 속히 임하고, 영감은 이사야 10장의 불의한 칙령이 그 일요일 법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절은 불의한 칙령을 만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한다.

만나를 먹는 것이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였고, 둘째는 준비일에 '두 배로 거두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안식일 시험,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세 가지 기적은 또한 열 가지 시험의 첫 번째, 곧 알파 시험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단계에서 만나를 주셨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갑절의 분량'을 주셨으나, 세 번째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 세 번째 시험은 앞의 두 시험과 다르다. 세 번째가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 시험은 첫 가데스로 이끄는 열 단계 시험 과정의 알파를 나타낸다.

여러 신학자들의 글을 찾아보면, 첫 번째 카데스에서 결론에 이르는 열 가지 시험의 목록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거의 모두가 그 열 가지 시험 중 하나로 홍해를 포함하고, 일부는 재앙이 일어나던 동안 홍해 이전의 역사적 이정표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것들은 모두 잘못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만나입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건넜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1, 2.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며, 예수님의 세례는 본질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험 과정을 가리키는데, 그 시작과 강조점은 식욕의 시험이다. 십자가는 애급의 유월절로 예표되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다른 편으로 나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 제물로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 물의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리스도(첫 열매 제물)는 40일간의 시험 과정을 시작하셨다. 세례로 예표된 바와 같이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대면하여 교제하셨다. 시험 과정은 홍해를 건너 뒤에 시작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시험은 식욕이었다. 하늘의 떡이 아담이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기름부음 받은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홍해를 건너 후 첫 번째 시험은 만나에 관한 세 가지 시험으로, 하늘의 떡에 대한 세 가지 시험을 예표한다. 그리스도의 시험은 그가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시작되었으므로, 열 가지 시험도 그들이 물에서 나온 '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때 그리스도는 식욕의 맥락 속에 놓인 세 가지 시험에 직면하셨는데, 이는 성령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후 시작된 만나의 세 가지 시험으로 예표되었다.

가데스에서 절정에 이르는 열 가지 시험이 어떤 반역들을 나타내는지 추측하는 다른 목록들은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 사건을 그 열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지만, 그 목록들은 틀렸다.

금송아지로 인한 도발은 두 가지 시험을 나타낸다. 이는 금송아지의 상징성에서 본질적인 요소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드러난 우상숭배 뒤에 모세가 돌아왔다. 그러자 백성은 모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상숭배자로 남아 있기로 선택했다.

두 겹으로 격화된 반역 속에서 우리는 지파들 사이의 예언적 분열을 보게 된다. 그 반역 이전까지는 성소 봉사가 각 지파의 맏아들에 의해 수행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레위 지파가 성소 봉사에 오로지 배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신실한 레위 지파가 성전을 지키고 관리할 것이다. '분열' 혹은 '둘'로의 분리는 금송아지의 예언적 특징의 한 요소다.

아론의 반역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첫 왕 여로보암의 반역을 예표하였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두 배'로 늘려 하나는 벳엘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 아론과 여로보암은 평행한 역사를 대표하는데, 그것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역사이다. 짐승의 우상의 역사는 미국의 일요일 법으로 나뉜 두 기간에 성취된다. 짐승의 우상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상징하며, 그것은 먼저 미국에서 세워지고 그다음 전 세계에서 세워진다.

짐승의 형상의 상징들과 관련해서는 늘 분열이 있다. 아론의 경우에는 레위인들이 분리되었고,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열두 지파가 남쪽의 두 지파와 북쪽의 열 지파로 나뉘었다.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이라 부른다. 아론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들은 짐승의 형상이었고, 그들이 형상으로 삼은 그 짐승은 바벨론이다. 이는 성경 예언에서 첫째 나라는 다니엘서 2장에서 "금"의 머리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짐승의 우상은 두 가지 시험을 나타내는데, 그 시험이 먼저 땅의 짐승, 곧 미국에게 임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미국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강요한다. 첫 번째 시험은 미국에게, 그다음은 온 세상이다.

"종교적 자유의 땅인 미국이 양심을 강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교황권과 연합하게 될 때, 온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그 본을 따르도록 이끌리게 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6, 18.

"이방 나라들이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비록 미국이 앞장설지라도, 동일한 위기가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증언집』 제6권, 395.

금송아지 반역은 이중적이며, 첫 아홉 가지 시험 가운데 두 가지를 표시하며, 그것들은 첫 번째 가데스에서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으로 이어진다. 아론과 여로보암의 반역을 '줄 위에 줄'로 함께 놓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교회를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두 선을 함께 보면 정교 결합의 상징이 된다. 여로보암의 두 제단은 벳엘(교회를 의미)과 단(심판을 의미)에 세워졌는데, 이는 함께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열 가지 시험을 식별하기 시작하겠다.

열 가지 시험은 안식(히브리서 3-4장)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그것들은 만나의 세 가지 기적과 그 기적이 안식일에 관해 주는 교훈으로 시작하여, 열 번째 시험인 첫 가데스에서 끝난다. 그 첫 가데스는 성경에 나오는 '노하게 하던 날'이며, 바울은 최종적인 반역을 안식일 시험의 맥락 속에 둔다. 알파 시험은 만나로 상징된 안식일이었고, 첫 가데스에서의 열 번째이자 오메가 시험도 안식이었다. 알파와 오메가는 언제나 시작과 더불어 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반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여 사십 년 동안 나의 행하신 일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노하여 이르되, 그들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고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 중에 맹세하였노니,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에게든지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엽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어떤 이들은 듣고도 노엽게 하였나니, 그러나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러면 사십 년 동안 그가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자.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이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였노니, 만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리라'; 그 일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이미 끝났는데도. 이는 그가 어느 곳에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음이라. 또 이곳에서 다시, '만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갈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처음으로 전파를 받은 이들은 믿지 않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또다시 그는 한 날을 정하여 다윗의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오늘이라 말하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만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과 같이 자기 일을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아무도 같은 불신앙의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3:8-4:11.

'격노하게 하던 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는 거절되었다. 이 본문은 그들이 들은 메시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한 부류의 사람들을 전제로 한다. 그 메시지는 '안식'으로 표현된다.

주님께 신실하고 간절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적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느니라. . . .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누구든지 같은
불신의 본보기를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은혜의 안식으로,
그 처방을 따름으로써 얻는 것이다. '부지런히 힘쓰라.' Pacific Union Recorder,
1901년 11월 7일.

"안식"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로 대표되는 하나의 메시지다. 바울은 일곱째 날
안식일과 관련된 진리를,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던 사람들이 거부했던 "안식"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삼는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강조와 동일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별을 듣는
것이며, 그것은 늦은 비의 기별, 곧 "안식"의 기별이다. 가데스에서 그 음성이 울렸을 때,
반역자들은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다. 이 반역 사건은 시편 95편과
바울의 히브리서에서 다루어진다. 그 역사는 고대 이스라엘이 열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열 가지 시험 가운데 첫 시험은 만나의 세 겹의 기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만나의 기적은 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의 쉼, 하늘의 떡,
순종과 심판을 상징하였다—그리고 열 가지 시험의 마지막은 "안식"의 시험이었다.
화이트 자매가 말한 바와 같이, 은혜의 "안식"은 늦은 비의 상징이다. 가데스는 "줄 위에
줄"로 제시되는 늦은 비의 기별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시험의 상징이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안식'은 늦은 비로 표상된 성령의 부여주심이다. '안식'은 또한 제칠일
안식일로, 늦은 비 기간 동안 신실한 자들에게 찍히는 바로 그 인이다. '안식'은 그들의
죄가 영원히 도말될 때 14만 4천에게 부여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이기도 하다. 그
은혜는 성화를 나타내는 부여된 능력만이 아니라, 회개한 영혼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될 때 칭의를 제공하는 은혜이기도 하다. 은혜의 '안식'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며, 그 의는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는 은혜(능력)를 제공하고,
라오디게아인을 빌라델비아인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제공한다. 칭의의 은혜로 변화된
뒤, 이전의 라오디게아인은 빌라델비아인으로서는 은혜의 능력을 통해 영화에 이르는
거룩한 길을 걷는다. '안식'은 곧 "진정한 의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 표현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다면, 가데스는 1888년을 가리켰다.

첫 번째 가데스는 '복음'의 메시지인 '안식'을 가리킨다. 영원한 복음은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형성한 뒤 드러내는 삼중의 시험 과정을 도입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첫 번째 가데스에서의 '안식'에 관한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삼중 사역에 의해 주관되는 영원한 복음의 삼중 메시지를 나타낸다.
그 세 단계는 만나 시험에서의 세 가지 시험 단계와 동일하다!

열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먹고 소화할
책임을 강조하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 시험 과정으로 시작된다. 열 가지 시험 가운데
첫째와 열째는 모두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시험에서는 만나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높이는 하늘의 떡의 상징으로 쓰인다. 마지막 시험에서는 '쉼'이 일요일
법령에서 절정에 이르는 늦은 비의 최종 시험 과정을 상징으로 사용되며, 그곳에서

하늘의 떡을 대표하는 자들이 안식일의 기치로 높여진다.

열 가지 시험의 시작과 끝은 안식일과, 안식일과 관련된 복음의 기별, 곧 셋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강조한다. 첫 가데스는 열 가지 시험의 오메가이므로, 열 가지 시험의 알파도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가데스는 1863년을 상징했는데, 그때 주께서는 자신의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백성을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은 지연되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시편 135:4.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니, 여호와께서 지면 위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14:2.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면 위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위에 있도록,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으로 너희를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떤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신명기 7:6, 7."

'그리하여야 이곳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이 아니니이까? 이로 말미암아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서 구별되리이다.' 출애굽기 33:16.

"옛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반역했으며,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심판이 임하여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던가!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세상과 뒤섞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모든 표징을 잃어버릴 지속적인 위험 속에 있다. 디도서 2장 13-15절을 다시 읽으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특별한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마지막 날들에 이른다. 우리가 옛 이스라엘처럼 그분을 노하시게 하겠는가? 우리가 그분에게서 떠나 세상과 뒤섞이고 우리 주변 나라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우리 위에 불러들이겠는가?" 증언 1권, 282, 283쪽.

화이트 자매는 묻는다. "우리가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노하게 하겠는가?" 우리는 세상과 뒤섞임으로써 그분을 노하게 한다. 여기서 세상은 이집트로 상징되며, 그것은 카데스에서 반역자들이 자신들을 그곳으로 되돌려 이끌 지도자를 찾았던 바로 그곳이다. 1863년에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욕망과 새 지도자를 뽑으려는 일은, 영감의 기록에서 세상과 연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타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앞서, 고대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화이트 자매의 주석이 있었다.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이라는 맥락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부와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지 보여 주는 구절들을 제시했지만, 그 신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으로 연결된다.

그녀가 기록한 대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셨다. 그분은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1863년, 라오디게아적 밀러파 재림운동은 그들의 젊은이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에 징집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정부와 동맹을 맺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를 읽는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오래 방황하는 것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받기를 기뻐하였다면,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자주 그분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분은 진노 중에 그분을 온전히 따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오직 그분만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에스라 4장 1-5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포로로 잡혀 갔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앗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부터 그분께 제사를 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의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오직 우리만이 함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해 건축할 것이니, 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땅의 백성들은 유다 백성의 의욕을 꺾고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며,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그들을 대적하도록 모사들을 매수하였다.'

에스라 8:21-23: '그때에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한 바른 길을 그분께 구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길에서 원수들에 맞서 우리를 돕도록 왕에게 군사와 기병을 청하기가 부끄러웠으니, 이는 우리가 왕에게 이르기를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분의 권능과 진노가 임한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선지자와 이 조상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이 우정을 표방하고 그들을 돕고자 했을지라도, 그분의 예배와 관련된 어떤 일에도 그들과 감히 연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분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여정에서 그들을 도와 달라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과 기도로 주께 도움을 구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려는 노력 가운데 있는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예배를 세우시는 데 그분의 원수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악한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주 앞에 다른 신들을 두는 자들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로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든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나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과 우정을 맺는 일은 감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증언, 제1권, 281, 282쪽.

화이트 자매는 가데스의 반역에 대한 그녀의 주석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만물의 창조주는 자신의 예배를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원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는 악으로 드리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주 앞에 다른 신들을 둔 자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1863년에 라오디게아적 밀러파 재림주의 운동은 교회가 되었고, 나라에 그리고 그 후에는 전 세계에 일요일 예배를 강요할 권세와 동맹을 맺었다.

다음 글에서는 1844년부터 1863년에 이르는 예언적 기간의 완결점인 1863년에 기여하는 예언적 계열들에 대한 고찰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장차 있을 것이요, 이미 행해진 것이 앞으로도 행해질 것이니, 해 아래 새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라, 이것은 새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덜어 낼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것도 이미 있었으며,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전도서 1:9, 10; 3:14, 15.